Ⅰ 서론

1. 연구 배경

개인보험은 사망, 건강, 장수 등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개인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화한다. 개인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망률, 질병 발생률, 기대수명 등 생애에 걸친 불확실성 변화와 더불어 사적 부양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구조 변화, 공적 보장 시스템의 역할 변화, 노동기간과 소득수준 변화, 경제성장 및 금융시장 변화 등 다양하다. 한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부양의식, 사망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문화적 요인 또한 개인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개인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초래하는 두 가지 요인은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이며, 두 가지 모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개인의 기대수명 증가는 은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를 어렵게 하며,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비용 지출 부담을 가중한다. 이에 더해 출산율 감소에 따른 청년 및 중년 인구의 감소는 노년인구 부양 여력을 약화시켜 노년층 및 노년 진입층이 스스로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예비적 저축을 확대하고, 노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의사결정 변화를 통해 대응하며, 개개인의 의사결정 변화는 결과적으로 거시경제 변수에 반영되어 또다시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를 형성한다.

결국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 자체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환경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가 개인보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단편적인 인과관계에 기반하기보다는 이러한 동태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 모형) 구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개인보험 수요에 미치는 동태적 과정을 구현해 보고자 한다. 특히 개인보험 중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공적보험 및 사적보험을 내포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구고령화의 두 가지 축인 노후건강과 소득 문제를 모두 정량적인 모델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나, 두 가지 모델링을 하나의 보고서에 구현하는 데 있어 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의 해를 찾기 위한 시간 및 시스템적인 제약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의 범위를 건강보험으로 한정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의 범위는 건강보험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고령화, 개인 의사결정 변화, 경제환경 변화, 개인보험 수요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상품, 저축 및 투자형 보험, 소득보장 및 재해보험, 유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종신보험 등의 수요변화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도록 한다.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재의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모형의 균형을 도출한 후 벤치마크로 설정하고, 확률적 사망률 모형을 활용하여 도출된 미래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 변수와 개인보험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관련한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2장에서는 본 연구에 활용할 정량모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3장에서는 모형의 모수설정 방법을 서술한 후 기준경제의 설정 및 분석을 다룬다. 4장에서는 미래 사망률 추정 모형의 적용 및 추정 결과를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모형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이 때, 고령화로 인한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물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및 민간의료보험 수요 변화의 양상을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5장에서는 분석의 결론을 요약하고 정책적·전략적 시사점을 간략히 소개한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를 개인보험 수요와 연결하면서 거시경제 모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할 수 있어, 분석결과의 과도한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2. 선행연구

Lim(2016)은 DSGE 모형을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현상의 분석에 활용한 첫 시도로서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특히, Lim(2016)은 (확률적) 중첩세대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현상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채택한 모형과 달리, 그의 모형은 사적건강보험을 고려하지 않아 의료비 지출 충격의 효과를 과대평가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Lim(2021)은 Lim(2016)의 모형에 사적건강보험을 포함시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거시경제 및 사적건강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였다. Lim(2021)은 연구주제에 있어 본 연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Lim(2021)이 채택한 모형은 확률적 중첩세대모형으로 고령화 현상을 정교하게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선행연구의 범위를 국외로 넓히면, Attanasio et al.(2010)은 미국의 인구고령화가 메디케어 지출을 통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Auerbach and Kotlikoff (1987) 모형을 바탕으로 DSGE 모형을 제시하였다. Attanasio et al.(2010)은 개인의 연령 구분은 물론 기술숙련도 및 건강상태에 따른 이질성을 현실적으로 모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성을 가지지만, 미국의 공적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메디케어가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보장 대상 및 범위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직접적인 비교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Attanasio et al.(2010)의 모형은 여러 신흥국의 고령화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에 활용되었다. Hsu and Liao(2015)와 Hsu et al.(2015)은 각각 대만과 태국의 고령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Hsu and Yamada(2012)는 일본의 고령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Attanasio et al.(2010)의 모형을 발전시켰다.